

[ 종합·해설 ]

檢, “계약서 도장李후보 것” 잠정 결론

정치권 BBK 공방 ‘새 국면’

신당 “李 거짓말쟁이” 한나라 “위조된 계약서”

BBK 명함 놓고도 논란 일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공식선거운동 2일째인 28일을 맞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지 주목된다.

우선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경준씨가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진짜’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무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당 등에서 기존 한나라당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고, 검찰이 내달 초 김씨의 기소시점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파문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면계약서 도장 논란=검찰은 대검 문서감정실로부터 이면계약서 및 각종 도장, 친필사인

등의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면계약서 도장에 대해 “김경준이 위조했다”거나 “이 후보의 공식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위조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관이한 결과여서 이면계약서 자체의 진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김현미 선대위대변인은 “결국 한나라당은 거짓말쟁이 정당이며, 이 후보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 후보측은 두 문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의 개인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 클린정치위원장 홍준표 의원이 최근 제시한 이 후보의 인감증명서에 나와있는 인감도장은 이면계약서 도장과 비슷하지만 하지만 글자체와 글자 굵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BBK 명함 논란=이명박 후보로부터 ‘BBK 명함’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장춘 전 대사가 지난 27일 MBC ‘PD수첩’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의 최측근 김백준씨로부터도 지난 2001년 3월31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BBK 명함’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 대사가 공개한 명함에는 ‘김백준(e뱅크-코리아)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있고, 하단에 ‘BBK투자자문회사·LK-eBANK·EBK증권중개주식회사’ 등 3개 회사 이름이 인쇄되었고, 중간 여백에는 명함을 건네받았다는 날짜와 장소가 이전 대사의 자필로 기재돼 있다.

이에 이 후보측은 당시 LKe뱅크의 설립 실무를 담당했던 김경준씨가 명함을 제작 혹은 조작한데다 명함내용을 봐도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반박했다.

“세계 1천개 기업 국내 유치”

신당 정동영 후보



공식선거 시작 첫날 도라산 역에서 ‘평화’ 메시지를 띄운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28일 이틀째 유세에서는 인천 경제의 성장 엔진인 GM 대우자동차를 찾아 1천 개의 세계 첨단기업 국내 유치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의 자유지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를 키워드로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정 후보는 대우차 임원 및 노조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권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영진, 노조 지도부, 중소기업인 400~450명으로 구성

된 외자유치단 ‘팁 코리아’를 꾸리고 해외로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한, “정부가 1조 원, 민간이 1조 원을 출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 제2, 제3의 GM대우를 만들겠다”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기업을 1천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GM 대우자동차 현장 방문에 이어 정 후보는 오후에는 인천 남구의 재

래시장이 응현시장과 인천 부평 롯데백화점, 경기 안산 중앙역 신세기 빌딩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응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했다는 증거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독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제 7회 말 공격으로 주자가 만루에 꼭 차있는 상황이며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대역전극이 이뤄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행정도시 예정대로 추진”

한나라 이명박 후보



후보 등록 이틀째를 맞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28일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한 이른바 ‘이명박 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충청 민심 겨냥기에 나섰다.

이날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여권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정도시 없다’고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

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충청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으로 이어지는 ‘서부벨트’를 공략할 수 없다는 전략적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도 관측된다.

여기에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다는 ‘원죄’가 있다는 점도 이 후보가 충청 공략에 열을 올리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온양재 래시장 민생 탐방에 나서서 한편 아산 현충사 참배와 천안 거리유세를 마치고 귀경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잘 섬길 주인공 누구? 주요 대선 후보의 포스터. 왼쪽부터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연합뉴스

“李후보에 타격 줄 ‘한방’ 있다”

신중식의원 “내달 6일 밝힐 것”

신중식 통합 민주당 의원 (고흥·보성)이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방’이 있다고 주장,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28일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다음달 5일 김경준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며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신당에서는 다음달 5일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곧바로 6일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며 “이는 곧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30일 호남서 李후보 첫 지원 유세

무안 등 방문... 일정 유동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30일 당의 취약지역인 호남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첫 지원유세에 나선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유세 일정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30일 무안 해제를 시장에서 첫 지원 유세를 가진 뒤 해남지역 상가와 강진 노인대학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주말인 다음달 1일에는 김포와 고양 등 경기도에서 유세를 갖고 3일과 4일에는 각각 제주와 전북 지역을 찾을 계획이다. 일요일인 2일 하루를 제외하곤 제주·호남권역을 순방하는 ‘강행군’이다.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열세 지역의 호남은 박 전 대표가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배려해왔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까지 이명박 후보와 함께 하는 유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지원 유세 결정도 재고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유세 일정은 유동적이다.

지난 26일 박사도 일부 회원들은 박 전 대표 삼성동 자택 앞에서 유세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아시아 금융 허브 육성”

무소속 이회창 후보



이회창 무소속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둘째 날인 28일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 여의도 증권회사 각각에서 ‘개미투자자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과 서민경제 실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선준편 여의도 본점 객장에 들러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증시는 단순히 주식거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

제와 직결된다”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기초가 잡혀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선진화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주가는 경제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지표”라며 “뉴욕이나 런던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도록 세계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의 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다.

이 같은 공약들은 불법탈세 및 자녀 위장취업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 팬클럽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이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담배뚝! 독소안녕~' (Cigarette! No more toxins)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인텔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냉방' (Intel's revolutionary energy-saving cooling) featuring a computer monitor and text about energy efficiency.